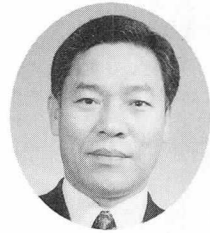


## 국제 양돈수의학회 (IPVS)를 유치하자



박 남 용 교수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오늘날 축산업 경기의 장래는 예측할 수 없다. 광우병 과동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대장균성 식중독 원인체인 0-157의 국내 확인 기사로 생고기 음식이나 내장고기 거래가 타격을 받고 있다. 대동물인 소를 주축으로 한 축산업이 흔들린다면 양돈산업이라도 단단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다. 이런 때 일수록 관계 분야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실력 배양과 국내 양돈업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국제 양돈수의학회 유치를 제안한다.

지난 7월 8일 김포 국제공항 제 1청사 2층 커피숍에는 주식회사 동방 이각모 사장의 주선아래 국내 양돈 전문가 수명이 함께 보였다. 이태리 볼로냐에서 개최되는 나흘간의 제14차 국제 양돈수의학회(International Pig Veterinary Society ; IPVS)에 참석키 위해서다.

일찍이 1969년 6, 23-28일 영국 캠브리지에서 최초로 열리기 시작했던 IPVS는 매 2년 마다 개최되는데 지난 13차는 94년 6, 26-30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지금부터 이번 이태리와 태국 IPVS 학술발표 내용을 곁들이며 참가여담으로 이야기를 열거할까 한다. 이각모 사장은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수의 인원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미국 모 회사의 자금을 사심없이 요청해 연구사업을 벌리는데

매번 적극적이었다. IPVS 참가등록비는 비싸게도 35~40만원씩이나 되며 이태리까지 왕복 비행기값, 호텔은 학술 회의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었으니 이 회사의 특별한 배려를 기억하고 싶다. 밤중에 호텔에 도착했으나 나이타인지 내 머릿속의 생물학적 시계는 나를 아침 6시에 정확히 기상시킨다. 걸어서 5분, 학술회의장에 8시 도착해보니 벌써 세계 각 지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등록 접수대에서 받아둔 가방을 열고, 8시 30분부터 학술발표가 시작되는 발표장의 선택을 위해서는 초록집을 재빠르게 훑어야 한다. 난 PRRS 발표장을 택했다. 첫 시간부터 시작되는, 주한수 교수 좌장, 강영해, 권창희 박사의 발표를 듣기 위해서다. 국제 학술 발표장에서 좌장을 하건, 발표자가 되건 당사자는 영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자못 긴장하면서 실수 없기를 기대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난 번 태국 IPVS 발표장에서 내가 좌장을 할 때도 귀를 쫓긋해도 어느 부위에서 청취가 잘 안되어 실수했던 것이 생각나서 실소를 금치 못하곤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총 52개국에서 1,454명의 양돈 및 수의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이중 국내 전문가들의 참여수는,

참석자 명단에 의하면 49명(국외거주 5명 포함)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참석했다. 참석자 분포를 봐도 다양하다. 학계 12명, 수의과 학연구소 6명, 동물약품업체 16명, 사료업체 9명, 양돈업체 4명등이다.

이번 IPVS에 참가했던 국내 전문가들의 발표 연제는 19편으로 총 678편중 19편을 참가 국가별 평균 편수 13편 보다 많아 그 활약상이 돋보였던 것이다. 논문의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손색이 없었던 것 같다. 필자도 가장 많은 편수가 발표되어 역시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질병인 PRRS에 대한 38편의 논문중 하나였다. 유전 공학적 진단 기법으로써 파라핀 조직을 대상으로 1·2 시간대에 정확히 진단 가능한 조직내 유전자 융합법(In Situ Hybridization)에 의한 논문을 소개한 것이다.

본 IPVS 대회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학술논문 발표내용을 중요 주제별로 소개해 본다. 홍막페렴, 대장균증, 돈적리, 살모넬라, 마이코플라스마 및 파스튜렐라 등과 같은 세균성 질환이 180편, PRRS, 오제스키병등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해서 112편, 영양, 사료, 첨가제 등 63편, 번식, 육종, 산과 및 인공수정 등 68편, 역학, 집단방역, 돈사 및 환경 68편, 약리 및 독성학 33편, 기생충 질환 22편, 면역 및 백신 관계 24편, 병리 및 생리학 분야 41편, 조기 이유 14편, 양돈 경영 11편, 돈육 품질관리 및 위생 13편, 유전육종 19편 그리고 특강 10편으로 구두 발표 258편, 포스터 발표 420편을 합해 총 678편이 발표되었다.

2년 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치하여 큰 관광 수입도 올리면서 대회 자체 수입급만 해도 3-4억은 거뜰히 벌었을 "미소의 나라" 방콕 대회를 이어서 종합해 본다.

발표되었던 538편은 42개 나라의 수의사와 양돈 전문가들이 낸 것인데 그중 214편은 구두발표,

325편은 포스터 발표였다. 발표된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세균성 질환 125편, 바이러스성 질환 95편, 사료 첨가제 및 투약 67편, 번식 및 산과 65편, 역학, 집단 방역, 돈사 및 환경 50편, 약리 및 치료 43편, 기생충 24편, 면역학 및 백신 15편 병리 및 생리학 기타 44편, 특강 10편이 그것이다. 54개국으로 부터 1,350명이 정식 등록했으며 그 외 271명의 동반가족 인원은 별도이다.

우리가 유치한다고 가정 해보자. 2년 후 영국에서 있을 IPVS총회에 대비해 홍보용 필름을 준비하고 일본, 필리핀, 대만 등 사람들과 협조요청을 미리 해 두자. 많은 서양사람들도 이곳을 와 보고 싶어할 것이다.

숙박 시설로 5개 정도의 쓸만한 호텔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객실 모두 800개 정도면 되니 우리나라 서울에서 불가능 할 것도 없다. 그러나 국제 학술 발표장 규모가 문제이나 이제 우리정부에서도 국제 회의 유치 법안을 통과시켰고 ASEM회의도 유치했으니 앞으로 6년 후에는 시설이 확보될 것이고 불가능할 것도 없다. 게다가 2002년에는 월드컵이 있으니 만반의 준비가 될 것이다.

제15차 IPVS는 1998년 7월에 영국 버밍햄에서 열기로 이미 선정되었고, 또 그 2년후인 2000년 16차 IPVS는 선전을 잘했던 호주 멜버른으로 총회석상에서 거수 투표로 압도적으로 선정되었다. 경쟁국이었던 멕시코나 알렌린의 유치 선전 내용은 너무나 빈약했기에 표를 모을 수 없었다. 대회가 유치되면 세계 굴지의 굵직한 제약회사가 17군데 이상이 찬조하는데 많게는 1억원 부터 3천만원까지 협찬금을 받을 수 있다. 약 1,500명의 등록금 40만원 정도를 계산해 보자,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 뻔하다. 그게 문제인가 학술발표장의 슬라이드를 한글로 좌정시켜 같이 투영시키거나 동시 통역원을 잘 활용한다면 국내 모든 양돈가나 질병전문가들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